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인천지방검찰청**  
전문공보담당자 제1차장검사 이준식  
전화 032-861-5002, 팩스 032-860-4305

**보도자료**  
**2020. 6. 18.(목)**

**제 목**

**국제공조 및 추적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검거한  
일명 ‘아시아 마약왕’ 구속기소**

**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**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※ 2020. 6. 17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(부장검사 문영권)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태국에서 도피생활 중이던 일명 ‘아시아 마약왕’ A를, 캄보디아 및 태국 마약청,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하여 약 4년간 추적한 끝에 검거하고 국내로 강제송환하여, 금일(‘20. 6. 18.)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음
- A는 2013.경부터 2018.경까지 사이에 캄보디아로부터 **합계 18.3kg 상당의 필로폰을** 밀수입하고, 185회에 걸쳐 **합계 9,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함**

**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**

- 피고인
  - A (56세)
-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  - 2013. 9. 5.경부터 2017. 12. 20.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16명의 국내 운반책을 이용하여 캄보디아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.3kg 상당의 필로폰 밀수입 [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]

- 2015. 10. 6.경부터 2018. 1. 21.경까지 사이에 국내 판매책을 이용하여 서울 등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9,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속칭 ‘던지기 방식’으로 판매 [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]

※ 던지기 방식 : 필로폰을 0.1g, 0.5g, 1g 등의 단위로 포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미리 숨겨놓은 후, 사진을 촬영하여 필로폰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

## 2 수사 경과

- '16. 1.            검거된 국내 운반책 진술 토대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던 A의 밀수 범행 인지, 체포영장 발부
- '16. 3.            A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, 여권무효화
- '18. 1. 22.        대검찰청,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공조하여 A 검거하였으나, 태국으로 탈출
- '18. 2.~'19. 12. 대검찰청, 태국 마약청,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,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 등이 공조하여 A 추적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대검찰청은 '19. 3. 공조수사 위해 태국 마약청에 검찰마약수사관 파견
- '19. 12. 27.      태국에서 A를 불법체류자로 검거
- '20. 3.            태국 이민청, A 강제추방 결정
- '20. 5. 30.        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, A 신병 인수하여 국내 송환
- '20. 6. 18.        구속기소

## 3 참고사항

- 국제공조 통한 추적 검거
  - 검거된 국내 운반책 조사중 캄보디아로부터의 필로폰 밀수입을 주도하는 A를 확인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하고, 여권 무효화 하여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공조하여 A를 검거하였으나 캄보디아 이민국 구치소에서 도주
  -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, 대검 마약과는 국정원과 공조, A 및 주변인에

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집중 분석하여 A의 공범을 확인, 검찰수사관과 국정원 직원이 태국 마약청 직원들과 같이 공범을 먼저 검거하고, 공범을 통해 A 소재 파악하여 도피중이던 A를 4년 만에 태국에서 직접 검거하였음

※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: 조직적 국제 마약범죄의 배후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. 8. 신설되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남아, 미국 등 외국 거주 밀수입자 추적 검거

#### ● 4년여에 걸쳐 18.3kg에 이르는 필로폰 대량 밀수

- A는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캄보디아와 태국을 오가며 인터넷을 통해 공짜 여행을 미끼로 모집한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국내 운반책 등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여 국내로 21회에 걸쳐 필로폰 18.3kg을 밀수함

※ 이미 검거된 운반책, 국내 수령·판매책 등 공범 22명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 선고되어 확정(공범들은 징역 2년 6월에서 9년까지 선고)

- A가 밀수한 필로폰 합계 18.3kg은 필로폰 1회 투약분 0.03g을 기준으로 할 경우 610,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, 그 시가는 610억 원에 이룸

※ 2008년 아·태지역에서 적발된 필로폰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(적발된 필로폰의 75% 이상은 메콩강 유역 국가인 미얀마, 라오스, 태국, 캄보디아, 베트남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짐), 최근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필로폰이 증가하고 있음

#### ● COVID-19(일명 코로나)로 인한 송환 어려움에도 강제송환

-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의 태국 입국이 전면 제한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태국 이민청, 주태국한국대사관 등 유관기관과의 3개월간의 끈질긴 협의 끝에 A 신병인수

- 인천공항 도착 직후 A로 하여금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코로나 잠복기 경과시까지 A를 격리 구금시켰으며, 호송팀도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는 등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함

## 4 향후계획

●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태국,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한 미검거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예정

-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지검은 국제마약범죄조직 추적수사팀을 운영, 마약류 밀수조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밀수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 ☐

<운반책을 통해 피의자가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중 일부 압수물>



팬티 속에 숨기기 위해  
검정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 
비닐 랩으로 감싸 포장함



여성 운반책의 브래지어 속에 숨기기  
쉽도록 필로폰을 납작한 모양으로 만들어  
비닐 랩으로 감싸 포장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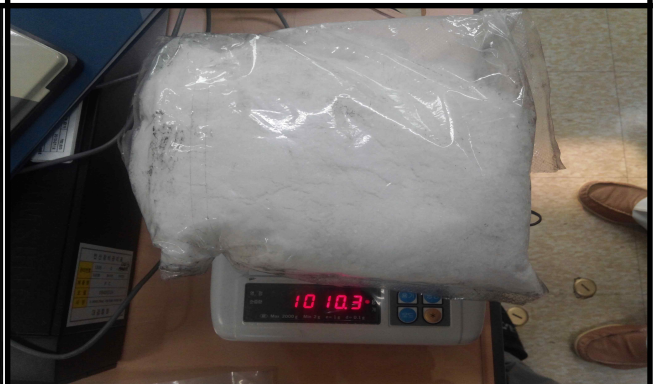
검정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 
운반책의 복부에 붙이고 비닐 랩으로  
몸을 감싸는 방법으로 필로폰 은닉



복부에 숨겨서 국내로 반입한  
소포장된 필로폰



여행용 캐리어 밑바닥에 은닉한 필로폰



압수한 1kg 상당의 필로폰